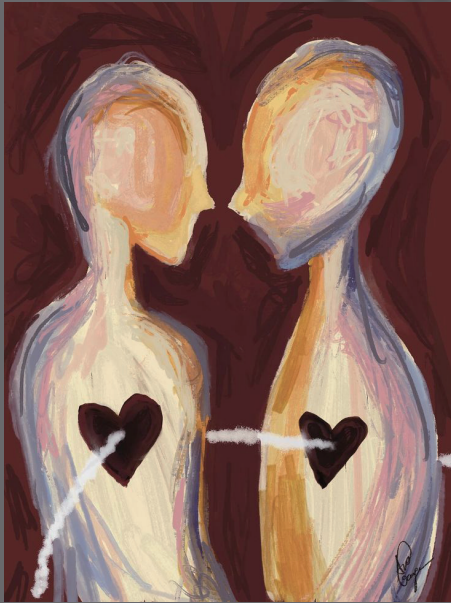


사랑이 가져오는 무수한 가능성에 대하여

김 율유안



디지털 드잉교

‘아이’는 손가락을 움직여 핸드폰을 몇 번 톡톡 치면 열리는 대문의 집에 산다. 화면 속 ‘아이’의 모든 일상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린다. ‘아이’의 같은 아파트 이웃사촌부터 세계 반대편 이국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들까지. ‘아이’의 부모가 SNS에 ‘아이’의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아이’를 직접 마주친 적은 없지만, 매일 지척에서 ‘아이’의 일상을 보고 듣는다. ‘아이’가 사는 동네의 이름부터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거실에 있는 소파의 브랜드까지. 모래알처럼 세세한 정보들이 금방 내 손에 쥐어진다. 영상을 조금만 들여봐도 알 수 있는 ‘아이’의 정보가 진열대 위의 상품들처럼 죽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셰어런팅(sharenting)’은 영어단어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이 합쳐진 신조어다. 보호자가 자녀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용어는 2012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처음 등장하여 알려졌다. 오늘날 셰어런팅은 SNS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셰어런팅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이 영상에 출현해 키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도 하고, 부모가 SNS에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한다. 육아 정보나 경험을 SNS에서 이야기할 때 자녀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일어나곤 한다.



세어런팅은 국제적인 트렌드로 떠올랐지만, 그 위험성 문제로 무수한 비판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흉악한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상의 사진과 영상을 올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동이 사는 곳과 생년월일, 다니는 학교/보육 기관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정보가 유출되면 아동이 유괴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으로 이어진다. 범인이 아동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아동이 그 교묘한 거짓말을 사실 너머에서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어런팅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끔찍한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신원 도용 범죄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기술의 발달이 빨라진 오늘날에는 영상에서 모습이나 목소리를 추출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난 촬영물의 경우, 성범죄에 이용될 위험까지 불러일으킨다.

세어런팅의 어두운 그늘은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보호자가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하기 어렵다. 그 당시에는 동의를 표할 수 있지만, 자라고 난 후의 의사능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SNS에 게시하는 사진과 영상에는 아이가 울거나 찡그리는 모습, 기저귀 가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아동이 자라고 난 후에는 이런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로 인하여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불링에도 노출될 수 있다. 게시물 속 아동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미성숙한 모습에 대해 서슴지 않게 돌을 던지는 일들이 온라인상에선 비일비재하다. 또한 자신이 출현하는 게시물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사실 자체에 아동은 불쾌감 등 부정적 경험을 겪을 수도 있다. 자신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이 생활하는 데 계속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공유된 게시물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완전히 사라지는 게 불가능하기에 더 그렇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그만두더라도, 한 번 업로드된 게시물은 끊임없이 공유되고 저장된다.

이처럼 셰어런팅은 평범한 일상에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건 사고들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셰어런팅이 절대적으로 아동에게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행위 안에는 보호자의 사랑이 생생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 보호자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애정을 담아 공유하는 행위는 사랑에서 비롯한다. 셰어런팅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나만 보기 아깝다는 생각, 꼭 기록하고 싶다는 의지가 발현되어 생기는 일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셰어런팅을 통해 멀리 떨어져 살아 자주 보기 힘든 가족과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친지 간의 정을 나누고,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사이에서 대화의 끈을 찾는다. 서로 안부를 전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써도 발생하는 것이다.

세어런팅은 육아 도중 느끼는 고립감과 부담감을 해소하는 탈출구 기능을 하기도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세어런팅을 통해 필요한 육아 제품을 자세히 알아보고,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 SNS에서는 육아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는 대화의 장이 펼쳐지곤 한다. 이처럼 양육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부모들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이점과 위험성이 나란히 공존하는 세어런팅. 세어런팅을 할 때 아이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사랑을 담아 올리더라도,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생각해서도 보호자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번 공유 버튼을 누르면 사실상 인터넷상에 박제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세어런팅 관련 법안을 점차 마련하는 추세다. 프랑스에서는 '세어런팅 제한법(sharenting law)'이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세어런팅 제한법'은 부모가 아동의 초상 등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다. 한국은 아직 세어런팅 관련 법규가 명확하게 생겨 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관련 논의가 천천히 진행되는 중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아동 권리 단체 등이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개개인의 인식 확산이 절실히 보인다.